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이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자비나눔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했다. 사진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공연 장면



동행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장윤정 씨와 윈크가 자승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무주상 나눔 생활화하면 더 행복해져요”

동행 제1회 '자비나눔 후원의 밤'... BBS 12시간 생방송

#덕신 씨의 고등은 이종으로 왔다. 작년 7월, 아버지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사업을 돌보지 못했고, 운영하던 생수 유통대리점은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적자가 이어졌고 결국 빚을 안게 됐다. 트럭을 팔고 사업을 정리해도 3000만 원 가량의 빚이 남아있는 덕신 씨에게 명도소송장이 날아왔다. 1년째 관리비가 밀린 그는 이제 이사를 해야 한다. 한편 현재 아내 정인 씨는 속발성 파킨슨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상태다. 덕신 씨는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거동을 못하는 아내를 보살피고 있다. 그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한다.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고. 그래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을 스치는 날이었다. 함박눈이 세상을 뒤덮어 온통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겨울이 낭만적일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추위가 매섭게 몰아닥칠수록 하루하루가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것이다. 동행 자비나눔후원의 밤 영상에서 만난 덕신 씨와 재식 씨의 사연은 가슴 한 구석을 뭉클하게 했다. 세상의 자비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의 눈이 그들에게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한 희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이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자비나눔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불자 지도자 네트워크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 주최, BBS불교방송과 동행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는 2008년 아름다운동행 창립 이후 최초로 열린 후원의 밤 행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다.

자비나눔 후원의 밤은 성전 스님과 BBS불교방송 최은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 불교포럼 김동건 대표, 정각회 장정갑윤 국회의원을 비롯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아름다운동행 후원자 200여명의 참석했다. 또한, 이 행사는 BBS를 통해 1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은 “경제 불황으로 내,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다. 불자들이

먼저 나서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불연이 전해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최된 행사”라며 “이제 출범 4년째를 맞는 아름다운 동행은 무주상의 나눔을 생활화하며 심시일반 나누는 공동체를 실현해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불교포럼의 김동건 대표는 “불교포럼이 출범한 이후 수행과 나눔의 불교정신을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후원의 밤을 통해 불교와 사회가 소

사부대중 200여 명 참석 소외 이웃 영상 상영 '몽쿨'

장윤정 윈크 재능 기부 공연 후원자들 새로운 다짐 전회

통하는 장을 마련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후원의 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아름다운동행의 저소득가정 지원, NGO 단체 지원, 긴급구호 및 국제개발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외 이웃들의 영상을 통해 나눔의 필요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신나는 공연도 마련됐다. '나눔&동행 콘서트'는 동행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장윤정과 쌍둥이 불자 가수 윈크가 출연해 신나는 무대를 펼쳤다. 이들 공연은 재능나눔으로 이루어져 더욱더 눈길을 끌었다.

하얀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출연한 장윤정 씨는 어부바로 첫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스님들 앞에서 특별히 의상에 신경을 썼다는 장 씨는 “이렇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나눔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신나는 무대로 대중을 압도한 윈크의 무대도 인상적이었다. 윈크는 “불자가로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예전에는 나누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나누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감을 전했다. 행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의 공연으로 끝을 맺었다. 출연진 각자 자신의 어머니 나라 옷을 입고 공연을 펼친 레인보우합창단은 '아름다운 세상' 등을 부르며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노래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태희 씨(59)는 3년째 동행에 후원을 하고 있는 천안 보명사 신도다. “이웃 종교 단체 기부제단에 기부를 하면서 불교계에도 이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동행을 만나게 돼 너무 기쁘다”라고 전했다.

2년째 동행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정향 씨(53)는 “수혜자들의 영상을 보며 가슴이 많이 아팠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내 직업이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이런 나눔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후원 ARS 060-700-0011

글=정혜숙 기자 bwjhe@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동행 후원자들 명단이 공연장 앞에 게재됐다.



가수 장윤정 씨의 재능기부 공연 장면



후원자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의 마음을 다졌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격하고 있다.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통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